

문교부 제정 “한글의 로마자표기법” 검토 연구*

李 孟 成
(英語教育科)

0. 머리 말

0.1. 로마자표기의 목적

한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은 그 목적에 따라 표기 원칙이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목적에 합치하는 포괄적이고 최선의 표기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국어 로마자 표기의 목적은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① 한국어를 모르는 일반 외국인이나 외국 학자가 한국에 왔을때 또는 서적을 읽을 때 한국의 지명, 인명등 고유명사와 한국어의 간단한 표현을 로마자 표기를 통해 되도록 원음에 가깝게 읽을수 있도록 하는 것.

② 한국어의 본격적인 학습이나 언어학적 분석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한글 정자법 대신 편의상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위에서 ②를 위한 표기법 제정에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어의 음운구조(와 형태론적 구조) 또는 정자법과의 체계적인 관련성이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이 될 것이다. 반면 ①을 위한 실용 표기법 제정에서는 한국어 구조 또는 정자법과의 체계적인 관련성 못지않게 실용상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문교부 제정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목적 ①의 각도에서 분석 검토한 것이다. 따라서 목적 ② 또는 그외의 목적을 위한 표기법은 필요에 따라 따로 검토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0.2. 로마자 표기법 제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점

실용 로마자 표기의 사용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과정이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1.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 :

2. (a) 표기 읽기(즉 발음)

또는 (b) 표기 옮겨쓰기(또는 전달)

* 본고는 이맹성, 이승구가 문교부의 위촉을 받아 작성 제출한 “문교부 제정 한글의 로마자표기법 검토 연구”(1978년 9월)의 내용을 수정 가필한 것이다. 1978년 12월에 문교부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시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한다. 다만 본고에서 언급된 원칙적인 문제들은 이 시안을 검토하는데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말해 두고자 한다.

3. (a) 로마자 표기로 읽혀진 (즉 발음된) 소리를 듣고 한국어에서의 해당 어휘 또는 표현을 알아내는 일

(b) 또는 쓰여진 로마자 표기를 보고 한국어에서의 해당 어휘 또는 표현을 알아내는 일
1의 과정은 주체가 주로 한국인 (또는 한국어를 익힌 외국인)이 될 것이며, 2의 과정은 그 주체가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될 것이며, 3의 과정은 그 주체가 한국인 (또는 한국어를 익힌 외국인)이 되는것이 보통일 것이다. 실용을 목적으로 하는 로마자 표기법의 제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위의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냐는 점이 가장 큰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1의 과정에서는 표기자에게 있어 표기법의 사용이 편리하고 정확도가 높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기법이 한국어의 정자법 또는 음운체계에 가까운 것이 바람직 하다. 2의 과정에서는 (a)의 경우 사용자인 외국인이 로마자 표기를 통해서 한국어의 원음에 가장 가까운 소리를 낼수 있게 되어야 한다. 3의 과정에서는 한국인이 (a) 외국인에 의한 로마자 표기 발음을 들었을 때, 또는 (b) 로마자 표기를 보았을 때 쉽고 정확하게 한국어의 원어를 알아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실용을 위한 로마자 표기법 제정에서는 적어도 다음의 두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① 체계성
- ② 원어에의 환원성 (원음과의 유사성 또는 원어의 철자와의 유사성에 의존함)

0.3. 검토사항

본고에서는 문교부 제정 로마자 표기법에 관련하여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거나 표기원칙이 분명치 않았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하기로 한다.

- ① 파열음 및 파찰음의 표기
- ② 모음 ㅜ, ㅡ 및 이와 관련된 모음의 표기
- ③ 형태 음운론적 음운 변화의 표기

1. 파열음 및 파찰음의 표기

파열음 ㄱ, ㅋ, ㆁ, ㆁ, ㄷ, ㅌ, ㄱ, ㅋ, ㄷ, ㅌ 및 파찰음 ㅈ, ㅉ, ㅊ의 표기는 문교부 표기법과 다른 주요 표기법과의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문교부 표기법과 다른 주요 표기법(McCune-Reischauer (이하 MR); Martin; Lukoff)과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

제로 삼고져 한다.

가정 : 외국인이 로마자 표기를 보고 발음할 때 그들은 로마자로 표기된 원어의 음운 구조를 습득하고 그에 따라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모국어 (또는 익숙한 외국어)의 음운구조에 맞춰 발음하게 된다.

각 표기법에서의 파열음과 파찰음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문교부	MR	Martin	Lukoff
ㅂ	b	p(b)	p	p
ㅍ	p	p'	ph	ph
ㅃ	bb	pp	pp	pp
ㄷ	d	t(d)	t	t
ㅌ	t	t'	th	th
ㄸ	dd	tt	tt	tt
ㄱ	g	k(g)	k	k
ㅋ	k	k'	kh	kh
ㄲ	gg	kk	kk	kk
ㅈ	j	ch(j)	c	j
ㅊ	ch	ch'	ch	jh
ㅉ	jj	tch	cc	jj

1.1. 초성위치에서의 표기

1.1.1. 인지(recognition)적 측면에서의 고찰

(1) 한국어의 파열음과 파찰음은 같은 조음점에 3개의 음운대립이 존재하나 영어를 비롯한 주요 유럽어에서는 2개의 음운대립만이 존재한다. 또한 한국어에서의 이들 음운의 변별적 자질은 기음(aspiration)의 정도나 근육긴장도(tenseness-laxness)의 차이인데 비해 영어 등에서의 변별적 자질은 유성-무성의 차이이다.

위에 든 표기법중 문교부안을 제외한 모든 표기법은 초성위치에서 모두 무성음을 사용하였는데(Lukoff안의 경우 파찰음제외) 동일 조음점에서 무성 파열음이나 파찰음의 음운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영미인(이나 기타 유럽인)에게는 3개의 음운 대립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될 가능성이 짝다. 다시 말해서 p(ㅂ), p'(또는 ph)(ㅍ), pp(ㅃ) 등은 모두 같은 소리로 발음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문교부 안은 b(ㅂ), p(ㅍ), bb(ㅃ) 등으로 돼 있어 b(ㅂ), p(ㅍ) 등의 대립은 쉽게 발음될 수가 있다. 여기에서도 b(ㅃ), bb(ㅃ) 등의 대립은 구분이 쉽지 않겠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2개의 음운대립은 이루어질 수 있는 셈이다.

(2) ㅂ, ㄷ, ㄱ, ㅈ는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발음되고 그 밖의 위치인 초성과 종성

등에서는 무성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초성 등의 위치에서는 p, t, k, ch의 표기가 b, d, g, j의 표기보다 더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낼수 있게 하리라는 생각을 갖기 쉽다. 위에는 McCune-Reischauer 및 다른 표기법들은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에 있어서의 파열음과 파찰음의 성질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영어의 무성 파열음과 파찰음(p, t, k, ts)은 초성 위치에서 한국어의 ㅂ, ㄷ, ㄱ, ㅈ보다 기음이 한결 더 세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어서 한국인에게는 ㅂ, ㄷ, ㄱ, ㅈ로 들리기 보다는 오히려 ㅍ, ㅌ, ㅋ, ㅌ로 들리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에서의 ㅂ, ㄷ 등의 대립은 기음의 정도에 의해서 변별되는 만큼 한국인은 기음의 정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ㅂ, ㄷ, ㄱ, ㅈ을 p, t, k, ch로 표기하는 경우 영미인들에 의한 발음을 ㅍ, ㅌ, ㅋ, ㅌ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유성, 무성의 차이는 변별적 기능이 없으므로 한국인은 이 차이를 기음의 차이처럼 기능적인 차이로는 파악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성 위치에서 ㅂ, ㄷ, ㄱ, ㅈ를 b, d, g, j로 ㅍ, ㅌ, ㅋ, ㅌ를 p, t, k, ch로 표기하는 경우 한국인의 귀에 b, d, g, j의 발음이 다소 이상하게는 들릴지 모르나 ㅂ, ㄷ, ㄱ, ㅈ의 음을 짐작하는 것은 파히 어렵지 않으며 ㅂ, ㄷ 등의 구분에도 큰 문제가 없게 된다. 따라서 위와같은 점을 고려할 때 파열음 및 파찰음의 표기에는 무성음보다 유성음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¹⁾

더우기 영어의 [b, d, g, dʒ] 등이 초성 위치에서 발음될때 소리의 앞 부분은 무성음으로 시작되고 중성 위치에서는 소리의 뒷 부분이 무성음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ㅂ, ㄷ, ㄱ, ㅈ를 b, d, g, j로 표기하는데 따르는 문제는 (적어도 영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

두개 이상의 표기법의 우열을 논하는데 있어 그 표기법들이 표기체계나 간편성 등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경우 음운의 변별성, 특히 음운 인지(recognition)에 있어서의 변별성이 가장 중요한 판정의 기준이 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에서 얘기된 내용을 다시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ㅂ, ㅍ, ㅃ 등을 p, p'(또는 ph), pp로 표기하는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은 실제로는 3음을 구별 못하고 동일하게 발음하게 되어 한국인이 들을 때 3음중 어느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1) 그러나 음운 인지의 가설은 실험에 의해서 뒷받침될 때 그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관련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아직 이러한 실험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여기 제시된 가설에 입각해서 고찰을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배양서(1979)에는 이와 관련된 흥미있는 실험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는 바 이러한 성질의 실험이 앞으로 더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실증적인 바탕 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영어에서 p, t, k, ch([tʃ]) 등은 모두 초성에서의 기음의 정도가 한국어의 ㅂ, ㄷ, ㄱ, ㅈ 보다는 강하므로 오히려 ㅍ, ㅌ, ㅋ, ㅊ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③ ㅂ, ㄷ, ㄱ, ㅈ를 b, d, g, j([dʒ])로 나타내는 경우 b, d, g, j 등은 한국어의 초성위치에서의 음과 유성, 무성의 음성적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한국어의 음운도 유성 변이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유성, 무성의 차이는 한국어에서 기능적 대립의 구실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인이 이들 표기를 ㅂ, ㄷ, ㄱ, ㅈ로 파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우기 기음을 수반하지 않는 b, d, g, j를 기음이 상당히 약한 ㅂ, ㄷ, ㄱ, ㅈ의 표기로 사용하고 기음이 어느 정도 강한 p, t, k, ch를 기음이 강한 ㅍ, ㅌ, ㅋ, ㅊ의 표기로 사용하는 것은 기음의 정도를 음운식별의 변별 자질로 사용하는 한국인들의 인지양상에 알맞는 것이라 여겨진다.

1.1.2. 언어감각적 측면에서의 고찰

로마자표기 사용자가 지니는 감각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주로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로마자표기를 사용하게 되는 외국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영미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위에서 얘기한 한국인의 음운 인지상의 경향이나 음운의 변별성보다는 영어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로마자표기의 자모를 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영미인이 초성 위치에서의 ㅂ, ㄷ, ㄱ, ㅈ를 무성음 p, t, k, ch로 표기하기를 원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객관적인 변별성 보다는 각자의 언어 감각을 더 소중히 여기려는 이러한 경향은 로마자표기의 사용도 언어 생활의 일부를 형성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수긍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ㅂ, ㄷ, ㄱ, ㅈ의 초성 표기에 대한 이러한 경향은 또 하나의 특이한 현상에 의해서 더욱 굳어지는 것 같다. 한국인의 인명에는 ㅂ, ㄷ, ㄱ, ㅈ로 시작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들을 로마자의 유성 자음으로 표기할 때 의미나 연상이 좋지 않은 영어 어휘를 닮게 된다는 가 영어적 감각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못한 느낌을 준다든가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 같다. 예를들면 ‘박’ 씨는 Mr. Bag, Mrs. Bag, ‘강’ 씨는 Mr. Gang, ‘공’ 씨는 Mr. Gong 등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이 상당한 정도로 영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만큼 영어적인 감각도 발달돼 있다는 점이다. 로마자의 자체가 영어의 자모와 같기 때문에 로마자표기의 사용에 있어 영어적인 감각은 영어를 아는 많은 한국인에게도 작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박’ 씨 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성을 Bag이라고 표기하기를 꺼려할 것이고 ‘강식’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이름을 Gangsig이라고 표기하기를 원치 않을 가능성이 짙다. 이와 같은 현상은 ‘김’ 씨를 Gim이라고 적는 경우에 ‘짐’이라고 발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함께 ㅂ, ㄷ, ㄱ, ㅈ

를 유성음 자모로 표기하는 방식에 큰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지적 변별성의 입장과 언어(영어) 감각적인 입장은 파열음 및 파찰음의 자모를 결정하는데 있어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바, 이 두 입장중 어느것을 더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 표기의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변별성의 기능적 비중은 어느 정도로 두어야 하며, 언어(영어) 감각적 측면에서의 비중은 어느 정도로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1.2. 유성음 사이에서의 표기

McCune-Reischauer에서는 유성음 사이에 일어나는 ㄷ, ㄷ, ㄱ, ㅈ는 따로 b, d, g, j를 사용하여 예외적으로 1음운 2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교부 표기법을 따르면 이 경우에도 1음운 1기호로 죽하게 된다. Martin과 Lukoff에서는 1음운 1기호의 원칙에 따라 유성음 사이에서도 p, t, k, c(단 Lukoff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성음 사이에서의 ㄷ, ㄷ, ㄱ, ㅈ는 원음의 음가에서 더욱 떨어져 ㄷ, ㅌ, ㅋ, ㅊ로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1.3. 종성 및 자음 앞에서의 표기

문교부 표기법은 ㄷ, ㅌ, ㅋ, ㅊ, ㅌ, ㅌ는 종성 (또는 자음앞) 위치에서 정자법을 따라 그대로 표기하고 ㅈ, ㅉ, ㅊ는 발음되는 음운을 따라 d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종성 표기에 이중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뚜렷하지 않으나 아마도 가능한한 정자법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 문제는 자음의 형태음운론적 변화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로마자 표기를 정자법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음운 중심으로 할 것인지의 원칙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뒤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1.4. 파열음 및 파찰음 표기와 관련된 각 표기법의 그 밖의 문제점

1.4.1. 문교부 표기법

문교부 표기법 중에서 적지않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ㄱ이 모음 | 앞에 일어날 때 [dʒ]로 읽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 김해, 표기, 공기' 등을 Gim, Gimhae, pyogi, gong-gi로 표기하면 외국인들(특히 영미인들)은 '짐, 짐해, 표지, 공기'에 가깝게 읽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문교부 표기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ㄱ이 모음 | 앞에서 [dʒ]로 발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영어의 철자 g+i는 [dʒ] 못지 않게 [g]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²⁾ 이를 문제삼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이 경우에 한해서 g 다음에 특수한 글자나 기호를 덧붙여 쓰는 방법이다.⁽³⁾

1.4.2. MR표기법

MR표기법은 파열음 및 파찰음의 표기에 있어 앞에서 지적된 것 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① ㄷ, ㅌ, ㅋ, ㅈ를 p', t', k', ch'로 표기하므로써 로마자 외에 부호 '를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실제 표기에 있어 적지 않은 불편을 수반한다.

② ㅈ의 표기를 tch로 함은 된 소리 표기를 글자를 겹쳐서 pp, tt, kk, ss로 표기하는 일반 원칙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1개 음운을 나타내는 표기로서 너무 복잡하고 미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③ ㅂ, ㄷ, ㄱ, ㅈ를 일어나는 자리에 따라 p, t, k, ch와 b, d, g, j로 구분 표기하여 동일 음운에 2기호를 사용하고 있는 바⁽⁴⁾ 한국인이 로마자 표기를 할 때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왜냐 하면 한국어에서의 이들 음운의 유성, 무성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비 변별적인 변화로 대부분의 한국인은 의식을 못하는 것이므로 이들 변이음(allophonic variants)의 분포에 대한 지식을 새로히 배우지 않고는 표기시에 이들을 구별하여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4.3. Martin표기법

위에서 언급된 것 외에 다음의 두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① ㅌ의 표기를 th로 함으로서 영미인이 이를 [θ] 또는 [ð]로 발음하게 될 가능성이 짙다.

② ㅈ을 c로 표기함으로서 영미인이 이를 [k] 또는 [s]로 발음하게 될 가능성이 짙다. 그 까닭은 영어에서는 철자 c가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 [k] 또는 [s]로 발음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1.1.4. Lukoff표기법

ㅌ을 th로 표기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점 외에 ㅈ를 j로 표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표기법에서는 ㅂ, ㄷ, ㄱ에 다 같이 무성자음 p, t, k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ㅈ에 만은 유성자음 j를 사용하고 있어 표기의 체계에 일관성이 결여되는 점이 있다.

(2) 예를 들면, gibbon, giddy, gift, giggle, gild, gill, gilt, gimlet, gimmick, ginko, give, gizzard 등이 있다.

(3) 이러한 글자가 기호로는 h나 '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기 : Ghim, Ghimhae, pyoghi 또는 G'im, G'imhae, poyog'i)

(4) ㅂ, ㄷ, ㄱ, ㅈ의 이러한 구분은 다분이 영어적인 음운 인식 양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생각된다.

2. 모 음

2.1. ㅏ, ㅓ

문교부 표기법의 모음 표기중 ㅏ와 ㅓ의 표기는 적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참고로 각 표기법에서의 이들 모음의 표기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문교부	MR	Martin	Lukoff
ㅏ	eo	ö	e	ø
ㅓ	eu	ü	u(ㅓ는 wu로)	u

문교부 표기는 부호를 쓰지 않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영어를 비롯한 유럽어에 eo표기가 ㅏ에 가까운 소리로 읽히는 경우는 없으므로 한국어를 모르는 영미인은 eo를 ㅏ와는 음가가 먼 [ia], [io], [eo]와 같은 이중모음으로 읽는 경향이 농후한 것 같다.

(보기 : ‘번지’ beonji; ‘덕성’ deogseong; ‘거북선’ geobugseon)

eu도 영미인에게는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표기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흔히 [iə], [iu], [eu] 등의 2중 모음으로 읽히는 경향이 있다.

(보기 : ‘득점’ deugjeom; ‘극동’ geugdong; ‘승가사’ seung-ga sa; ‘특등’ teugdeung)

문교부 표기법에 비해 McCune-Reischauer의 ö, ü(또는 Lukoff의 ø, u)는 원음에 보다 더 가까운 발음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ㅏ, ㅓ를 ö, ü(또는 ø, u)로 적을 경우 ㅓ, ㅓ와 뚜렷한 구별이 안될 염려도 있으나 eo, eu로 적어서 엉뚱한 발음을 하게 되는 것에 비하면 문제가 덜 된다고 생각된다. 다만 ö, ü는 부호가 보통 타자기에는 없어 타자로 표기하는 경우 일일이 손으로 적어 넣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편 ø, u는 타자기에 있는 부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편리하나 (그래도 타자 회수는 3번으로 eo, eu보다 한 타자씩 더 쳐야 한다) ø는 불어와 독일어 등에서 성질이 다른 모음(즉 전설모음)을 나타내는 발음기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이 ö, ü(또는 ø, u)의 사용은 어느 정도의 문제를 안고는 있으나 eo, eu에 비해 원음에 가까운 발음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로마자 표기법에서 표기의 편의성과 원음에 가까운 발음의 가능성중 어느쪽을 중시 하느냐 하는 원칙의 문제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3. 받침과 형태음운론적 음운변화의 표기

현행 문교부 로마자 표기법은 받침과 이에 관련된 형태음운론적 변화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해 산발적인 허용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체계적으로 표기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표기법의 기본원칙(1)은 한글의 현행 표기법을 로마자로 표기한다는 정자법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기본원칙(3)은 1음운 1기호의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음운표기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바, 한글의 정자법이 대체로 음운표기가 아닌 형태음운표기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 두 원칙은 형태음운론적 변화를 일으키는 말들을 로마자로 표기하고자 할 때 서로 상반되는 표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에 형태음운론적 변화를 몇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3.1. 받 침

현행 문교부 표기법은 받침에 대해 체계적인 언급이 없고 다만 다음과 같은 허용사항과 「주」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허용사항

ㄴ. 형태소(形態素)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연결음의 경우는 A를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은 B를 허용한다.

(보기)	A	B
값이	gabsi	
값과	(gabsgwa)	gabgwa
옷이	osi	
옷과	(osgwa)	odgwa
옷만	(osman)	odman
옷안	(os-an)	od-an

※ (주) ㄴ에서 ㄷ외에 ㅅ, ㅈ, ㅊ도 d로 적음.

(보기) 값자 gadji, 값으나 gasseu-na; 빗장이 bidjang-i, 꽃아 ggoja; 꽃과 ggodgwa, 꽃이 ggochi

위의 보기는 ‘옷’이나 ‘값’과 같은 말들이 뒤따르는 다른 형태소들이 없을 때 즉 독립적으로 쓰이거나 발화(utterance)의 끝에 쓰일 경우에 받침으로 무엇을 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로마자 표기법 기본원칙 (1)에 의하면 정자법을 따라 ‘옷’과 ‘값’은 각각 os, gabs으로 적어야 할 것이고 위의 허용사항의 정신이나 기본원칙 (3)을 따르면 od, gab으로 적어야 할 것이므로 실제 적용에 있어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⁵⁾

(5) 받침 표기로 검토되어야 할 것들은 위에서 예시된 ㄴ, ㅅ, ㅈ, ㅊ과 3.2 이하에서 언급되는 것들 외에 ㄱ(밖), ㅋ(부엌), ㅍ(앞), ㅊ(넋), ㅌ(앞), ㄷ(뚝), ㄹ(뚝), ㄹ(뚝), ㄹ(뚝) 등이 있다.

3.2. ㅎ과 관련된 표기

(a) 문교부 표기법은 허용사항 ‘ㄹ’에서 「“ㅎ”받침이 나는 소리에 가깝게 적는다」라고 하고 (보기)로 ‘좋다’ jodta를 들고, 또 이에 대한 「주」에서 「ㅎ+ㄷ=ㅌ(t), ㅎ+ㅈ=ㅊ(ch)의 법칙을 적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항은 그 기술 내용과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좋다’를 jodta와 같이 표기하여 ‘ㅎ’에 해당하는 위치에 d를 사용한다면 ‘좋고, 좋지’는 각각 jodko, jodchi로 적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소리에 가깝게」 joko, jochi로 적어야 할 것인지 분명치가 않다. 대체로 보아 ㅎ받침(ㄱ, ㄴ 포함)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음 사항에 대한 표기 세칙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① ㄱ, ㄷ, ㄴ, ㄷ, ㅈ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잇달아 일어나는 경우 (보기: 좋다, 옳고)
- ②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잇달아 일어나는 경우 (보기: 좋으니, 많아)
- ③ ㄴ으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잇달아 일어나는 경우 (보기: 닳는다, 싫니)

(b) ㅎ과 관련된 표기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ㄱ, ㄷ, ㄴ, ㅈ(ㄹ, ㅊ, ㅌ 포함)이 ㅎ과 어울릴 때의 표기다. 문교부 표기법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정자법을 따라 쓸 것인지 아니면 ㅎ받침에 관한 허용사항 ‘ㄹ’과 「주」의 규칙(즉, ㅎ+ㄷ=ㅌ(t), ㅎ+ㅈ=ㅊ(ch))을 원용할 것인지 분명치가 않다. 따라서 ‘막히다, 좁히다, 갇히다, 갖히다’는 각각 maghida, jobhida, gadhida, jadhida로 표기되는지 아니면 magkida(또는 makida), jobpida(또는 jopida), gadtida(또는 gatida, gadchida, gachida), jadchida(또는 jachida)로 표기해야 하는지 분명한 세칙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3.3. 구개음화 현상의 표기

문교부 표기법은 허용사항 ‘ㄱ’에서 「두 형태소 사이에 구개음화한 ㄱ, ㄴ이 덧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라고 하여 덧나는 소리를 밝혀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보기)	물양	mullyag	앞일	apnil
	공수일	gongnil	앞이	apni

그러나 구개음화한 현상으로 ㄷ, ㅌ이 모음(또는 ㅎ+모음) 앞에서 ㅈ, ㅊ으로 발음되는 경우(보기: 굳이, 같이, 굳히다, 붙이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표기에 있어 정자법을 따를 것인지 실지 발음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3.4. 자음 접변현상의 표기

문교부 표기법에서는 자음접변현상이 일어나는 말들의 표기에는 일절 언급이 없어 정자

법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고 소리대로 적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제시되어 왔다. 이 현상에 관련된 말들을 정자법 원칙에 의한 표기와 음운 표기 원칙에 의한 표기를 사용하여 비교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a)	정자법표기	음운표기
육만	yug <u>man</u>	yung <u>man</u>
십만	sib <u>man</u>	sim <u>man</u>
먹는다	meog <u>neunda</u>	meong <u>neunda</u>
넉넉(하다)	neog <u>neog</u>	neong <u>neog</u>
(b) 압록(강)	ab <u>log</u>	am <u>nog</u>
속리(산)	sog <u>li</u>	song <u>ni</u>
독립문	dog <u>libmun</u>	dong <u>nimmun</u>
열려	yeom <u>lyeo</u>	yeom <u>nyeo</u>
(c) 신라	sin <u>la</u>	sill <u>a</u>
달나라	dal <u>nara</u>	dall <u>ara</u>
(d) 십대(十代)	sib <u>dae</u>	sib <u>ddae</u>
못 보다	mod <u>boda</u>	mon <u>bboda</u>
못 자다	mod <u>jada</u>	mod <u>jjada</u>

3. 5.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받침과 형태론적 음운변화와 관련된 표기는 두개의 입장이 있는 바 하나는 정자법표기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음운표기원칙이라 할 수 있다. 문교부 표기법에서는 이에 대한 원칙이나 세칙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허용사항으로서 몇몇 경우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짐작해보면 정자법표기를 원칙으로 삼되 경우에 따라 음운표기를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자법표기원칙에 음운표기원칙을 부분적으로 혼용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음운표기 방식의 도입 기준이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하므로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형태음운론적 조건에 의해 음운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정자법을 따라 표기하게 되면 실제 발음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첫째 문제는 현행 표기법의 「허용사항」과 「주」를 보완하여 체계화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둘째 문제는 표기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표기의 기본원칙과 관련해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한다.

0.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표기의 원칙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고려되어야 할 점은 ① 표기의 용이성과 ② 원어에의 환원성이다.

표기의 용이성은 정자법원칙을 사용하는 경우와 음운표기원칙을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경우에 더 높아질 것인가? 이는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형태음운론적 음운변화현상을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는냐는 것과 관련될 것으로 짐작된다. 예를 들어 ‘종고’와 같은 말에서는 ‘고’가 실제로는 ‘코’로 발음된다는 것을 의식하는 정도가 상당히 뚜렷하지 않을까 짐작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자법을 따라 johgo로 표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joko(‘조코’)와 같이 음운표기의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용이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먹는다’, ‘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국어 사용자에게 있어 이들이 각각 ‘멍는다’, ‘달라라’로 발음된다는 의식이 비교적 뚜렷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음운표기를 따 meongneunda, dallara로 적는 것보다는 정자법을 따라 meogneunda, dalnara로 적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용이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표기의 용이성의 문제는 표기 대상이 되는 말의 음운변화의 유형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이에 입각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원어로의 환원성에 대해 고찰해보면 환원성에 두가지 상반된 성격의 유형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첫째는 로마자표기가 소리로 읽혀졌을 때의 환원성, 즉 청각적 환원성이고, 둘째는 글자로 제시되었을 때의 환원성, 즉 시각적 환원성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청각적 환원성은 소리대로 적는 표기방식을 택했을 때 그 효율성이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원음에 가까운 발음이 나오도록 하여 귀로 들었을 때 쉽게 원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즉 청각적 환원성에 큰 비중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 방식에 가까운 음운표기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고, 로마자표기를 눈으로 봤을 때 쉽게 원어를 짐작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즉 시각적 환원성을 중히 여기는 경우에는 정자법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⁶⁾

위와 같은 가설이 대체로 타당한 것이라면 로마자표기의 원칙 제정에서는 청각적 환원성과 시각적 환원성의 상대적 비중을 어떻게 다루느냐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던져주는 문제는 청각적 환원성을 높여준다고 여겨지는 음운표기와 시각적 환원성을 높여준다고 여겨지는 정자법표기는 각각 다른 양식의 환원성을 낮추게 되어, 음운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각적 환원성이, 정자법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각적 환원성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환원성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에는 세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청각적 환원

(6) 그러나 음운표기법이 청각적 환원성을 높여주고 정자법표기가 시각적 환원성을 높여준다는 것은 일종의 일반적 가설에 불과할 뿐이므로 실제의 실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정자법표기가 언제나 시각적 환원성을 높여주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올다’를 정자법원칙에 의해 olhda로 적는 것이 음운표기원칙에 의해 olta로 적는 것보다 반드시 시각적 환원성을 높여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성에 절대적 비중을 두고 시각적 환원성은 원칙적으로 도외시하는 입장, 둘째는 시각적 환원성에 절대적 비중을 두고 청각적 환원성은 원칙적으로 도외시하는 입장, 셋째는 양자를 고루 (또는 적절한 비중을 두어)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이다. 첫째의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이고, 둘째 경우에는 철자대로 적는 원칙이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셋째 경우에는 이 두 원칙을 절충한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로마자표기의 실용적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여러 문제는 단순히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로마자 사용의 실제면에서의 상황을 여러 각도로 면밀히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4. 맺 음 말

① 문교부 표기법에 의한 파열음 및 파찰음의 표기는 표기가 발음될 때의 인지(recognition)상의 변별성에 있어 McCune-Reischauer, Martin, Lukoff의 체계보다 뛰어나다. 그러나 영어적 감각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음의 자모 성정은 인지상의 변별성과 영어적 감각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어떤 비중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리라 생각된다.

② 모음 ㅜ, ㅡ 등의 현행 표기는 로마자 모음 자모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발음과의 관련성이 긴밀하지 못하므로 개정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들을 달리 표기하는 경우에 순수한 모음 자모만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③ 받침과 형태음운론적 변화의 표기는 표기의 용이성과 원어로의 환원성, 환원성의 유형의 상대적 비중 등에 대한 실제 사용면에서의 고찰과 아울러 심리적 과정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문교부, 한글의 로마자표기법. 1959. 2.

배양서, 言語接觸理論에서 본 한글의 英字化, 영어교육 12호. 1976.

——, “外來語의 한글化” 및 “國語의 로마字化” 試案批判, 영어교육 17호. 1979.

최현배, 문교부 제정의 한글을 로오마자 삼기와 로오마자의 한글 삼기에 대한 비평, 국어 국문학 24호. 1961.

Lukoff, Fred. Spoken Korean, Basic Course 2vol, New York: Henry Holt, vol. 1, 1945, vol. 2, 1947.

Martin, S.E., Y.H. Lee & S.U. Chang, A Korean-English Dictiona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7.

McCune, G.M. & E.O. Reischauer, The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Seoul. 1939.

Rutt, Richard, About the Romanization of Korean. Korea Journal May 1, 1972. Seoul.

Underwood, Horace G. On the Ministry's Romanization System. Korea Journal May 1, 1972. Seoul.

부 록

한글의 로마자표기법 (1959년 2월 9일 문교부 제정)

1. 한글의 로마자 표기의 기본 원칙

- (1) 한글의 현행 표기법을 로마식으로 표기한다(正字法).
- (2)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3) 일음운 일기호의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자음에 있어서는 이 기호를 허용한다.

2. 한글의 로마자화 방식

(1) 모 음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a	ya	eo	yeo	o	yo	u	yu	eu	i	
애	에	케	해	괴	왜	웨	위	에이	와	웨
ae	e	ye	yae	oe	wae	we	wi	eui	wa	weo

(2) 자 음

ㄱ. 파열음

ㅍ	ㅂ	ㅃ	ㅌ	ㄷ	ㄸ	ㅋ	ㆁ	ㄱ	ㄱ
p	b	bb	t	d	dd	k	g	g	gg

ㄴ. 파찰음

ㅊ	ㅈ	ㅉ
ch	j	jj

ㄷ.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ㄹ. 비 음

ㅁ	ㄴ	ㅇ
m	n	ng

ㄷ. 유 음

ㄹ
r, l

(3) 허용 사항

- ㄱ. 유음의 초성에는 r, 종성에는 l을 씀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받침 뒤의 ㄹ은 l로 씀.

모기 다리 dari 발 bal 신라 sinla

- ㄴ. 형태소(形態素)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연결음의 경우는 A를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은 B를 허용한다.

[보기]	A	B
값이	gabsi	
값과	(gabsgwa)	gabgwa
웃이	osi	
[보기]	A	B
웃과	(osgwa)	odgwa
웃만	(osman)	odman
웃안	(os-an)	od-an

ㄷ. 사이스은 ' (apostrophe)로 표시하고, 분절은 -(hyphen)으로 표시한다.
단, ' '은 ng소리가 다른 음과 혼동될 우려가 있을 때 쓴다.

[보기] 장이 jang-i

장기(將棋)	jang-gi
장끼	jang-ggi
장기(長期)	jang-gi
장기(長枝)	jang-gi
잔기(殘期)	jan-gi
경안(慶安)	gyeong-an

ㄹ. 'ㅎ' 받침은 나는 소리에 가깝게 적는다.

[보기] 좋다 jodta

ㅁ. 두 형태소 사이에 구개음화한 ㄹ, ㄴ이 덧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보기] 물약 mullyag 앞일 apenil
공사일 gongnil 앞이 apni

ㅂ. '깎고'와 같이 글자를 3번 거듭할 때는 1자를 생략한다.

[보기] 깎고 ggaggggo.....ggaggo
 꺾고 naggggo.....naggo

※ (주) ㄱ에서 받침 뒤의 ㄹ은 l로 씀.

[보기] 신라 sinla

ㄴ에서 ㄹ 외에 ㅅ, ㅈ, ㅊ도 d로 적음

[보기] 갔지 gadji 갔으나 gasseu-na
 빛장이 bidjang-i 꽃아 ggoja
 꽃과 ggodgwa 꽃이 ggochi

ㄷ에서 '가에'와 '개'가 혼동될 때는 ga-e로 씀.

ㄷ에서 ㅎ+ㄷ=ㅌ(t), ㅎ+ㅈ=ㅊ(ch)의 법칙을 적용

On the Romanization Syste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Lee, Maeng-sung

Abstract

Primarily the following aspects of the Romanization Syste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re examined:

1. Plosives and Affricates
2. ㅏ, ㅑ, and related vowels
3. Transcription of morphophonemic changes

The MOE system of plosives and affricates is somewhat superior in distinctiveness on recognition level to those of McCune-Reischauer, Martin, and Lukoff. Arguments may be raised, however, on the basis of perceptual feelings, particularly those of English speakers. It would be necessary, therefore, to analyze the nature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two aspects—i.e., distinctiveness on recognition level and aesthetic effects of the romanized representation.

The MOE symbols for (eo) and (eu) tend to produce sounds that are far from the original Korean sounds. It is desirable, therefore, to change the symbols for these vowels, even at the risk of introducing a sort of diacritical mark.

The representation of some syllable finals and morphophonemic changes ought to be systematized on the basis of (1) the easiness of romanization and (2) the recoverability of the Korean words from the romanization (written or spoken).